

여도초교 인근 주민 자녀 내년부터 입학 허가될 듯

여수산단 공장장들, 재단측에 수용 의견 전달

논란을 빚고 있는 주민 자녀들의 여수 여도초등학교 입학이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

여도초등학교에 기금을 출연한 여수산단 입주업체 공장장 10여 명은 지난 21일 모임을 갖고 학교 인근 주민 자녀들의 입학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단 이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 공장장들은 한 학급을 늘려 내년도 입학에 원하는 학교 인근 주민들의 자녀를 수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열리는 재단 이사회에서도 입학 허가 쪽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980년대 초반 설립된 여도초교는 내년부터 여수산단내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들만 입학할 허가하기로 결정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여수시 교육청도 산단 인근인 봉계동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들이 4km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며 재단 이사회에 입학 허가하도록 권고해 왔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승주 꽃감 말리기

순천시 승주읍 농가에서 꽃감 건조가 한창이다. 승주 꽃감은 상사호 상류 조계산 기슭의 자연 비림을 맞으며 건조돼 당도가 높고 색깔과 향이 뛰어나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광양제철 남초교 맞춤형 교육 운영 아름다운 학교상

광양제철 남초등학교가 최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인 'POS-V' 운영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부문 최우수 '아름다운 학교상'을 수상했다.

'POS-V 교육프로그램'은 논술·수학·영어·한문의 4개 영역에서 학생들이 목표, 문제해결능력, 전문성 등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제작돼 교육만족도와 공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해 왔다.

한편 광양제철 남초등학교는 2000년에는 교육환경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광양·여수항 예선 노조 파업

광양컨 터미널 운영사 2곳도... 물류 차질 우려

광양항에 입항하는 대형 선박을 인도하는 광양·여수항 예선노조 일부가 22일 파업에 들어가 물류 차질이 우려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수산업노조 광양·여수항 예선 노조에 가입한 10개 업체 중 2개 업체 조합원 30여 명이

이날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광양항 전체 예선 31대 중 5대가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광양항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인 허치슨과 KIT 노조원 50여 명도 예선 노조와 공동 파업에 돌입해 일부 컨테이너 상하역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

여수해양청 관계자는 "예선노조가 장기 파업을 할 경우 대형 선박 접안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이 정상 운항하는 예선을 방해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예선 노조원들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놓고 사측과 별인 협상이 결렬되자 이날 파업에 돌입했다.

광양항에 입항하려는 1천 500t 급 이상 선박은 안전한 접안을 위해 예선을 이용해야 한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순천 동사무소에 '사랑의 김치독'

왕조1·덕연동 등 3곳 독거노인 등에 나눠줘

순천시가 불우이웃들에게 김치를 무료로 나눠주는 '사랑의 김치독'을 일선 동사무소에 설치했다.

순천시는 지난 19일 왕조1동 사무소와 덕연동·해룡면사무소 3곳에 대형 김치냉장고를 설치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에 매주 일정량의 김치를 나눠주고 있다.

김치냉장고에는 일반 주민들이 담긴 김치와 후원금으로 시중에서 구입한 김치를 보관했다가 1가구 당 매주 1.5kg씩을 제공한다.

대형 김치냉장고 구입비용 1천만원은 국제라이온스협회가 기탁했다.

김치 제공 대상은 왕조1동 200 가구, 덕연동 60 가구, 해룡면 50 가구로,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에게는 복지도우미가 배달한다.

순천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향동에 사랑의 김치독을 마련해 불우이웃 31가구에 매주 1.5kg씩 김치를 무료로 나눠줬다.

순천시는 '사랑의 김치독'을 모든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순천~ 무안공항 버스 운행

하루 3차례... 2시간 10분 걸려

순천에서 무안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시외버스가 지난 21일부터 운행되고 있다.

순천~무안국제공항 간 시외버스는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156.5km 구간을 하루 3차례 운행하며 요금 1만700원에 2시간 10분이 소요된다.

순천 출발 시각은 오전 8시와 10시 40분, 오후 3시55분이며 무안공항에서는 낮 12시, 오후 1시50분과 6시40분

에 출발한다.

내년 6월 말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요금은 1만원 이하로 낮아지고 소요시간도 현재보다 25분이 단축된 1시간 45분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광주와 목포에서 무안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시외버스도 현재 4회에서 8회로 늘어나게 된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광양만권도 조선인력 양성

산·학·관 8개 기관 MOU 체결 내년부터 4년간 2천여명 교육

광양만권에서도 조선산업 인력이 양성된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 1월부터 울촌산업단지 등 광양만권 조선업체가 본격 가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학·관 공동으로 인

력 양성에 나선다.

이와 관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 순천·광양 폴리텍대학, ㈜우리엔트조선, SNC조선해양, 삼우중공업, 현대스틸산업 등

8개 기관은 22일 '조선인력 양성사업' MOU(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8개 기관은 내년 400여명 등 4년간 2천 명 가량의 인력을 양성한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레이크힐스 컨트리클럽

정용 대표이사 취임

(주)레이크힐스 순천 컨트리클럽 초대 대표이사 사장에 언론인 출신

정용(49)씨가 지난 20일 취임했다.

순천시 주암면에 위치한 레이크힐스는 오는 26일부터 시범라운딩을 시작한다. (주)레이크힐스는 전국에 5개소의 골프장과 골프필드를 운영중인 골프전문 기업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혼수, 가전, 가구, 사무용품 초특가 SALE!!

나방수품
주방용품
세탁기
초특가 세일

요한이네 할인매장